

동인지 「창조」 「폐허」 「백조」 연구

교양과
부교수 이 병 문

I. 서 론

우리의 조국광복에 대한 인내와 기대만큼 조국광복의 의의정립이 만족하다고 할 수가 어려울 것만 같다. 우리 조국이 광복되는 날에는 당장에라도 큰 어려움이 없이 그 동안 왜곡되거나 소홀한 민족사를 바로 잡으려니와, 정치 사회 문화의 각 분야에서도 그리할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 무엇 하나도 제 자리에 세워 보지 못하고 혼란의 반세기에 이르고 있다. 다만 어느 부분에서는 설득력 있게 정립되어 가는 것도 있어 다행이기도 하다. 우리는 지난 역사와 문학과 생활에 대해서 그것들을 들추어 살필 수 있는 것도 자료부족이라 하여 대충 넘어가려 하지 않았나 싶다.

본고에서는 특히 1920년대 초엽 한국문학에 이바지한 바가 컸던 세 동인지 「창조」와 「폐허」와 「백조」에 대해서 그 동안의 개념적 작업을 보다 자료적 작업으로 다루어 그 실체가 있는 대로 선보이고자 하며, 그간의 많은 이론 중심에서 작품중심으로 하나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동인들의 전체적인 집필동기나 집필작품을 지면을 아끼지 아니하여 다시 재조명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것에 대한 인식과 애정을 함께 하자는 것이며 우리것에 대한 역사의의를 함께 나누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과업을 문학사적 서술에만 의존하며 그냥 지나쳐온 감이 없지 아니하여, 이제 서지적 조명에의 기회를 빌자고 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둘 것이며 작품론이나 작가론은 다른 글에서 다루어 볼 것이다.

II. 본 론

1920년대 초엽 동인지 「創造」·「廢墟」·「白潮」, 이들의 동인은, 「창조」가 5인¹⁾에서

¹⁾ 創造, 제 2호, (동경: 창조사, 1919), p. 59.

12인²⁾까지, 「폐허」가 12인,³⁾ 「백조」가 11인⁴⁾에서 13인⁵⁾까지 함께 하고 있었다. 창조의 동인이었던 이광수와 오천석은 백조에도 함께 하였고, 김억과 김찬영과 김일엽은 폐허에도 함께 하였다. 그리하여 이 무렵 이른바 한국현대문학을 위한 활동문인은 우선 34인을 전후하여 헤아릴 수 있으리라 본다.

또 발행일은, 「창조」가 1919년 2월 1일⁶⁾로 1호를 시작하여 1921년 5월 30일로 9호를 내었으며, 「폐허」가 1920년 7월 25일⁷⁾로 1호를 시작하여 1921년 1월 20일로 2호를 내었으며, 「백조」가 1922년 1월 1일⁸⁾로 1호를 시작하여 1923년 9월 6일로 3호를 내었던 것이다.

오늘날 편집후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명칭이 각각 달리 쓰였다. 우선 「창조」에서는, “■남은말”(1호), “■나쁜말”(2·3호), “☐남은말”(4호), “☐남은말”(5호), “☐남은말”(6호), “나쁜말”(7호), “▲創造雜記▼”(8호), “남은말”(9호)들로 쓰였으며, 이들의 각각 문단표시는 “◎”표(1호), “△”표(2호), “▲”표(3, 4, 5, 6, 7, 8호), “■”표(9호) 들이다.

한편, 「폐허」에서는, “想餘”(1호), “廢墟雜記”(2호)로 쓰여졌고, 「백조」에서는 “雜記”로 쓰여졌다.

이들 글에서는 1920년대 우리 역사와 우리 문학의 현실이 얼마나 어려웠고 우울하였던가를 읽을 수 있다. 좀 지루하겠지만 한 두 곳을 인용하여 본다.

우리의가는길이곳을동안은우리는 아무런暗礁도두려워하지안습니다. 우리는모든逼迫과侮辱의길로라도 더욱勇敢하게나아가겠습니다. 우리길을막을者가누구임닛가!

마음이적적하신이는오십시오, 우리는그이와함께 울어드리겠습니다. 가슴아프신이는오십시오, 우리는 그이와가치속태우고, 가치에뿔고져합니다. (「창조」 1호에서)

廢墟우에 서고보니, 過去는杳然하야우리의가슴은漠漠하고, 現代는荒涼하야우리의 눈물을 자을닐뿐이다. 우리는말할수업는心的懊惱와苦痛을우리가슴에 무겁게품고눈물가지고廢墟에 섰다. (「폐허」 2호에서)

朝鮮사람이면은 누구나 다 말하는바이지만 우리는 自由가업습니다. 더구나出版에自由가업서요. 그런데에다 三月號를 出刊하라든 一週日前에 亞扁薛羅氏가 發行人을 謝退하였습시다. 그

²⁾ 상계서(제 7호의 김명순과), 제 9호 참조, p.97.

³⁾ 廢墟, 제 1호(서울:폐허사, 1920), p.122.

⁴⁾ 白潮, 제 1호(서울:문화사, 1922)

⁵⁾ 상계서, 제 3호, p.307.

⁶⁾ 創造, 창간호에서는 大正八年 二月 一日로 보임.

⁷⁾ 廢墟, 창간호에서는 大正九年 七月 二十五日로 보임.

⁸⁾ 白潮, 창간호에서는 大正十一年 一月 一日로 보임.

래 氏에게 陳情으로 懇請하기에 몇칠 다른곳에 紹介狀가지고 다니기에 몇칠 누구에게 交渉하기에 몇칠 누구누구에게 몇칠몇칠하다가 結局은 失望하여 몇칠 또 出版制度를고치자고 몇칠 그리 고보니 時節은 발서 느졌더이다. (「백조」 2호에서)

남에게 빛이잇스나 우리에는 아무러한 빛이업스며, 남에게 자랑이잇스나 우리에게 아무러한 자랑이업도다. (「백조」 1호에서)

이 무렵에 이들에게 쓰인 장르로는 지금과는 많이 다른 점이 있다. 「창조」에서는 詩, 小說, 戲曲, 紀行, 評論, 感想이 있었으며, 「폐허」에서는 詩, 小說, 評論, 散文, 隨想이 있었으며, 「백조」에서는 詩, 小說, 戲曲, 論評, 紀行, 感想, 想華가 있었다.

세 동인지 「創造」와 「廢墟」와 「白潮」들을 중심하여서, “한국문학 발달의 원류는 문학동인들의 동인지 간행으로 문학활동이 형성되고 문학인맥의 요람적인 구실을 다하였다.”⁹⁾ 고 할 만하다. 여기에서는 위 세 동인지에 대하여 그 사실 모습대로 기술하고자 한다.

1. 창조(創造)

1) 동인(同人)

1호 : 金東仁(琴童·시어딴), 金煥(白岳·흰뫼), 田榮澤(長春·늘봄·밭늘봄), 朱耀翰(별꽃·頌兒), 崔承萬(極熊·극곰).

2호 : 金東仁, 金煥, 田榮澤, 朱耀翰, 崔承萬, 李光洙(春園·외배).

3호 : 金東仁, 金煥, 田榮澤, 朱耀翰, 崔承萬, 李光洙, 李一(東園·南星), 朴錫胤(새별).

7호 : 金東仁, 金煥, 田榮澤, 朱耀翰, 崔承萬, 李光洙, 李一, 朴錫胤, 金明淳(望洋草·彈實),¹⁰⁾ 吳大錫(天國).

8호 : 金東仁, 金煥, 田榮澤, 朱耀翰, 崔承萬, 李光洙, 李一, 朴錫胤, 吳天錫, 金觀鎭, 金瓚永, 金億(岸曙).

9호 : 金東仁, 金煥, 田榮澤, 朱耀翰, 崔承萬, 李光洙, 李一, 朴錫胤, 吳天錫, 金觀鎭, 金瓚永, 金億, 林長和(蘆月).

2) 동인의 주소

5호에서 : (1920. 3.31)

金煥 : 東京青山南町本社

金東仁 : 平壤 下水口里 六番地

田榮澤 : 東京澁谷青山學院神學部寄宿舍

李一 : 京城鍾路中央基督教青年會館

⁹⁾ 조병화·서동철 : 한국현대문학사 (서울 : 유림사, 1981), p.67.

¹⁰⁾ 조연현 : 한국현대문학사개관 (서울 : 정음사, 1984), p.115에는 빠져 있음.

李光洙：(旅行中住所未詳)

朴錫胤：東京本郷區駒込分町三一日本館

朱耀翰：(旅行中住所未詳)

崔承萬：東京神田區西小川町二~五朝鮮基督青年會

8 호에서 (1921. 1. 27)

金觀鎬：平壤府壽町二番地

金東仁：平壤府下水口里六番地

金 億：京城府堅志洞三番地

金瓚永：平壤府壽町七七番地

金 煥：鎮南浦府碑石里一九一番地

田榮澤：平壤府倉田里一九番地

李光洙：上海在留(住所未詳)

李 一：京城府苑洞徽文高等普通學校

朴錫胤：東京市神田區西小川町二~五番地

吳天錫：仁川府牛角里一二番地

朱耀翰：上海楊樹浦호강대학

崔承萬：東京市神田區西小川町二~五番地

9 호에서 (1921. 5. 30)

金觀鎬：平壤府壽町二番地

金東仁：平壤府下水口里六番地

金 億：京城府清進洞二七六番地

金瓚永：平壤府壽町七七番地

金 煥，京城府鍾路二丁目八七番地

田榮澤：平壤府倉田里一九番地

李光洙：上海在留(住所未詳)

李 一：京城府義州通一丁目二番地

朴錫胤：東京帝國大法學部

吳天錫：仁川府牛角里一二番地

朱耀翰：上海楊樹浦호강대학

崔承萬：東京市神田區西小川町二~五番地

林長和：京城府勸農洞五一番地

3) 발행일 및 편집인

號數	發行日	編輯兼 發行人	印刷人
1 호	1919. 2. 1.	朱耀翰(橫濱)	村岡平吉(橫濱)
2 호	1919. 3.20.	朱耀翰(東京)	折坂友之(橫濱)
3 호	1919.12.10.	金 煥(東京)	折坂友之(橫濱)
4 호	1920. 2.23.	金 煥(東京)	折坂友之(橫濱)
5 호	1920. 3.31.	金 煥(東京)	折坂友之(橫濱)
6 호	1920. 5.25.	金 煥(東京)	折坂友之(橫濱)
7 호	1920. 7.28.	金 煥(東京)	折坂友之(橫濱)
8 호	1921. 1.27.	高敬相(京城)	金 聖 杓(京城)
9 호	1921. 5.30.	高敬相(京城)	金 聖 杓(京城)

號數	發行所	판매소	總頁
1 호	創造社(東京)	京城東洋書院 平壤基督書院 平壤光明書館	82 페이지
2 호	創造社(東京)	代理部泰西文藝新報社	60 페이지
3 호	創造社(東京)	代理部廣益書館	78 페이지
4 호	創造社(東京)	代理部廣益書館	62 페이지
5 호	創造社(東京)	代理部廣益書館	100 페이지
6 호	創造社(東京)	代理部廣益書館	82 페이지
7 호	創造社(東京)	代理部廣益書館	76 페이지
8 호	創造社(京城)	代理部廣益書館	116 페이지
9 호	創造社(京城)	代理部廣益書館	96 페이지

4) 남은말

(1 호에서) ■남은말■

◎ 우리의속에서 니러나는막을수없는要求로因하여 이雜誌가생겨났습니다. 各가지曲解와 誤解는처음부터올줄믿고잇습니다. 그러나우리는다만참으로우리또슬알아주시는적은部分의손을잡고나아가려함이다. 우리의가는길이곳을동안은우리는아모런暗礁도두려워하지안썩니다.우리는모든逼迫과侮辱의길로라도더욱勇敢하게나아가겟습니다. 우리길을막을者가누구임닛가! 우리는우리가참되다고생각하는바를, 우리가올타고잇는종소래를, 여러분이안드르실려고 썩, 두손으로막으신그것미데다가 더한층노픈곡도로올리우게하겠습니다. 그썩에야말로! 마춤내여러분외셔도우리말에 귀를기우리시게되리이다.

◎ 또, 처음부터 우리의 말을 드르시려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게서 무어슬 어드시려하시닛가. 한낱 재미있는 이야기 썬넛가? 저通俗小說의 平凡한道德임넛가? 또或은 「바람에 움지기는 갈대」임넛가?

◎ 여러분중에 엇던분이 생각하시는것가치 우리는 決코 道德을 破壞하고 멸시하는거슨아니올시다마는, 우리는 貴한藝術의 장기를가지고져 언제던얼굴을썬푸리고계신 道學先生의 代言者가될수 는업습니다. 그러나또 우리의 努力을 할일업슨者의 消日 썬라고보시는데도 不服이라 합니다. 우리는 다만 忠實히 우리의 생각하고, 苦心하고 煩悶한 記錄을 여러분썬의 보이느썬이 올시다. 그러면여러분은, 이제무어슬, 求하시려함넛가?

◎ 마음이적적하신이는오십시오, 우리는그이와함썬 올어드리겟습니다. 가슴아프신이는오십시오, 우리는 그이와가치속태우고, 가치애를쓰고져 합니다. 즐거워하시느이는오십시오, 우리는 그이와함썬 춤추고노래하려합니다. 당신의 人生에對하야 속담담하신이는오십시오, 우리는서로 함썬 열리지안는 靈魂의 운을두다립시다.

◎ 아모런지모든 障害를헤치고 이雜誌가난거슨 우리의것봄이올시다. 우리는다만 우리의가는 길을 보아달라할썬이올시다. (똥)

(5 단생략)

◎ 마지막에 한마디 합니다. 이번號 內容中 한둘이엇던 新聞에 廣告한것과 題目은틀렸스나 속살은 마튼가지오며, 「詩人 썬테」는 紙面의關係로 次號로미렸습니다.

◎ 또, 讀者諸君의 投稿는 아직까지는 紙面이 넉넉치못하야 낫나치바들수업스나, 만일 返送 郵稅를 同封하여 보내시면 우리同人이 보어드리고 그感想을 添付하여 도로보내드리겟사오며 或其中 特出 作品은 同人의 推薦으로 紙上에 올널가 하나이다. (編輯人)

(2 호에서) ■ 나문말 ■

△ 첫號는 처음일이라 內容도그리 充實치못하거니와 發行日字도 豫定보다五六日이나느것고 體裁等도不備한點이만흐면서, 여러분의기쁜 同情으로 썬맞게 歡迎을받게된것은 眞情으로感謝하는 바올시다. 內容에對하여서느여러말안하겟사오나다만내내저바리시지마시고 우리의가는 거름을 보아줍시사할썬이올시다.

△ 여러분썬서 우리를 同情하시는 뜻으로글을보내신것을 바다불적마다 우리는큰 援兵을어든것 가치 것분마음을이기지못하옵니 다한중에도特別히 泰西文藝新報社에서 만흔 好意를 表해 주실썬 더러 實地上으로여러가지 援助를 주신것은무어라고 고맙다하야할지모르겟습니다.

(8 단생략)

△지금編輯人은이번에 새로히 春園李光洙君이 우리同人이된것을報告하는榮光을가졌습니다. 우리가同人이라는일함을쓰는것은, 이雜誌에對하여 各各平等的의責任을가진 우리맺맺中에서 所謂主幹이니主筆이니하는일함을부치기를 全然히 실행하는싸답이올시다. 하닛가 여러분외셔도그리ारा주시기를바랍니다. 現在 우리同人은아래와갓슴이다. (가나다順)

金 東 仁
白 岳 金 煥
秋 湖 田 長 春
春 園 李 光 洙
(별뿔) 朱 耀 翰
極 熊 崔 承 萬

(3 호에서) ■나쁜말■

▲우리 創造가 겨우두살나서 우리 周圍의急迫한事情으로因하여 얼마동안잠을자지안을수없나이다. 그러나넘어오래쉬게되면 여러분외셔愛顧하시는恩惠를 저바리게되겠는고로다시눈을뜨고 거름을始作하였나이다만는 步調를마초아 거름을 잘 갖게될던지는 의문이외다. 그러나 여러가지 障害가잇슬지라도 우리는 잠잘새가안이오니 더한충힘잇는援助를 주시기바라나이다.

▲우리의게 同情과好意를 表할畵안이라實地上으로우리를援助하든 泰西文藝新報가 아조잠을 자게 됨은 말할수업는遺憾이외다.우리는그래서 不得已 泰西文藝新報社에委託하였든代理部를 廣益書館으로옮기게되엇사오니여러분은本社와갓치아라주시고 廣告에關한件은 代理部로무르심이 便宜하실뜻합니다.

(2 단생략)

▲本誌는 언제던지 물론文藝를 主眼으로삼지만은 우리 現社會의要求에應기爲하여 이번三號부터는 思想方面(論 評等)의 글도若干記載하려고합니다.

▲이번號부터 새로이 東園(或南星)李一君과 「새별」朴錫胤君을우리同人으로 報告하는榮光을 엇게되엇사오니 여러분은 우리와一體로 사랑하여주시기외다.

(9 단생략)

▲讀者여러분의 作品中에 우리同人이 보와서佳作이라고認定할새에는 紙面이許하는範圍안에서 만이 記載코져하오니 原稿을써서 보내주시기외다.

(4 호에서) ◻남은말

▲흐르는물과갓치, 닳는말과갓치 速하고쌀은光陰은, 어느덧一九一九年の빛해는 永遠으로 지나가고 一九二〇年の새해가되어 벌써한달이지내었나이다. 지나간빛해에 빗情을생각하시사새사랑을 더하여주시기외다.

▲이번 二月號는本誌創刊後滿一年인 고로 紀念하기爲하여 記事도 없이내고 모든것을 大的으로 하려고 無限한努力을다하였나이다만은가시덤불과가튼 우리 周圍의事情이 우리의理想을實現 케하지안음으로? 오직우리의 運命의 神의게 맞기고마랐나이다.

(8 단생략)

(5 호에서) ◻남은말

▲우리 創造가 우리 社會에 對하여야 으아소리를지르거나온지가 滿一年이되었나이다. 여러분中에는 創造는月刊인대 겨우五號를하여가지고一週年이 라니? 하고疑訝하실이도계시겟지만은 이는 여러분이다아시는바와갓치昨年二月에 우리 創造가 創刊號를發行하고第二號는印刷中에 잇슬썩에 우리 周圍에急迫한일이생겨서 不得已印刷를中止하고 아올너發行을中止 하엿든것이올시다.

▲우리 創造는 遠大한理想 과希望을가지고압만向 해야 모든苦難을 무릅쓰고 勇往猛進 하겟 나이다만은 이世上에 모든일은 하로나이틀에갑자기되는것이안이요 일에 大小와時代의 경우에조차 一年或은三年 或은十年 百年後에 라도 『하면될수잇다』는自覺을가지고百折不屈하는者의게는 반다시成功이 잇는것이올시다. 그러나우리가가만이안자서 幸運이절노도라오기를 기다리고만잇슬 수는업는것이올시다.

▲여러분야中에서 或時局에關한말을 써서 보내시는이가계 시지만은 우리 創造는純文藝雜誌인고로 作者의誠意는감사하나 記載할 수는업싸오니 여러분은 注意하여주시기를바라나이다.

(11 단생략)

(6 호에서) ◻남은말

▲우리 創造는 우리 半島의 文藝를 가장높은水平線우에까지 向上시키려는 精神을가지고나아갑니다. 따라서 그經營上基礎를 든든히하며 이를 永久히維持하기爲하여 財政上援助는今番서울에서 우리의文化을內面으로부터革新하겟다는主旨를가지고 새로니러난 漢城圖書株式會社에 依頼하게 되엿습니다.

▲그러나 編輯에關하여는 그냥前과갓치同人制로 우리同人들사람의 絕對自由오니그리아라주소서

(7 단생략)

▲우리는 벌써 同人以外에 天國, 金素月 松堂生여러친구와, 본국계신 우리 新詩壇의 明星이신 象牙塔, 岸曙兩君과 京都계신 든碧波方仁根君이 새로우리 創造의 寄稿家로되신거슬 저는몹시
김버합니다.

(2단생략)

(7호에서) 나쁜말

(2단생략)

▲望洋草金明淳嬢이 우리 創造에 同人이되길 約束하시고 이번 號에 다른 作品에서 맛볼수없는, 極히 덜니켄-트한 藝術的情調를 맛보게하는 佳作을 짓게된것은 매우 반가워하는바입니다. 嬢은 불붓는 듯한 熱情과 흐르는듯한 藝術的天分이 잇서서 압흐게 憧憬하는 藝術의 新天地를 꿈꾸며 努力하는이외다. 東京音樂學在學中입니다.

(4단생략)

▲이번에 에덴(天國) 吳天錫君과 望洋草金明淳嬢을 우리 同人으로 紹介하는榮光을 가지게된 故로 同人을代表하여 歡迎의뜻을 表하며 여러분씩向하야는 우리와一體로, 사랑하여주시기를 希望합니다.

▲우리 「創造」가 漢城圖書株式會社와 關係을 斷絶(詳細한것은 社告를보시옵)하는 同時에 月極讀者는 이번 號부터 다시 前과갓치 本社에서 直接發送하오니, 이제부터 무슨 通信이든, 本社로 直接하시기외다.

▲우리는 「創造」의 總發賣所를 京城잇는 漢城圖書株式會社營業部로 定하엿대스나 自今以後로는 該會社와는 去來를停止하고 京城府鍾路廣益書館을 代理部로指定하야 京城市內讀者의 便宜를 圖謀하는同時에 아울러 本誌에對하야 交涉할件은 代理部로하시더라도 無妨함을 宣布합니다.

(7단생략)

(8호에서) ▲創造雜記▲

▲우리글벗들중에 여긔잇는사람이만은고로 便宜上이번八號는 平壤서편습하여 京城에서發行하게 되엿스나 本社는언제던지 東京市靑山南町四丁目三番地(東京靑山局私書函第二號)에 잇사오니 그리아라주시며 前에先金를내신이외에는 雜誌를 京城代理部로 請求하시기를바랍니다.

▲望洋草金明淳嬢은八號부터는우리글벗이아닙니다. 報告하는결에 깃븐消息을여러분의게 알게 할것이잇습니다. 朝鮮唯一의畫伯인金觀鎬·金瓚永兩君과또 詩人으로 佛詩紹介者로有名한岸曙金億君은昨年八月부터우리글벗으로되엿습니다. 여러분과함께 환영합니다.

▲이번 號 맨 뒷쪽에 등그런 別한物件이잇는것은 우리 創造글벗의휘장입니다. 板의黑線으로된 全部金빛이오 白色部는 하늘빛 玉色으로되엿습니다. 여러분아라주시시오.

▲表紙解題 勿論創造를爲하야 그린表紙이었다. 그러나決코新年號를 意味호것은 아니었다. 偶然히酉年에該當호그림이된것은 참으로異常히生覺호다. 表紙가意味호는것은「平和」일가호다. 사람은「말」우으로내리지안으면안이될그새를 象徴호것이다. 「새」와「증싱」과「사람」이步調를아울너「희」뜨는곳을 向호다. 그것은「平和」다. 큰自然이創造호「平和」다.

(12 단생략)

(9 호에서) 남은말

(9 단생략)

■三月부터 朧月林長和君이 새로우리의글벗(同人)이되였습니다. 君은오스카와일드 研究者 以므로 來十號부터는우리의게 와일드가 紹介될줄압니다.

■表紙의解題 — 사람은그가는곳을아지못하나니라. 우호로우호로다만한없이놓호곳으로 ……

5) 작 품

詩

(1호) 주요한 … 불노리, 새벽꿈, 하이안안개, 선물. 벌꽃역 — 日本近代詩抄(1) — 島崎 藤村 … 오기쿠. 네소매. 고모로의넛城가에서. 土井晚翠 … 丞相. 河井醉茗 … 사쿠라소오 横 瀬夜雨 … 오사이. 平木白星 … 어둠속에. 薄田泣菫 … 샘. (2호) 주요한 … 해의시절. 아츨 處女. 벌꽃역 … 日本近代詩抄(2) … 蒲原有明 … 皂來 靈의해의蝕. 岩野泡鳴 … 말업슨돌. 열 쇠를달라. 달과고양이. 三木露風 … 四月. 마음속. 릉금나무미테. 봄. 北原白秋 … 邪宗秘曲. 미친거리. 불을불라. 하늘에새발간. 어릴적꿈. 류리베논이. 芥子矣. (3호) 벌꽃 … 散步. 處女. 바다의눈. 黃昏. 저녁밥. 東園 … 東京아잘잇거리. (4호) 요한 … 歌支那少女. 公園 에서. 아츨. 낮. 저녁. 밤. (5호) 吳天園 … 꿈길. 金素月 … 浪人의봄. 夜의雨滴. 午過의泣 그리워 春岡 秋湖역 … 가타리나. 他國에서. 어대 너인 슬기로운별 밤의뜻. 이른봄. (6호) 東 園 … 新生日. 象牙塔 … 눈으로愛人아오너라. 小曲. 天園 … 故鄉을 써남. 春園 … 밋봄. 요 한 … 의로움. 岸曙역 … 포을 포트 … 結婚式前. 살르베란 … 그나마잇는가업는가. (7호) 春園 … 江南의봄. 주요한 … 生과死. 天園역 … 타쿠르시집(1) … 씨탄자리. 안서역 … 罌·라 을 … 月下의漂泊. 셀리 … 寂寞. 이예츠 … 술노래. 한켈 … 가을의노래. (8호) 벌꽃 … 그봄을바라. 우리집. 싹밭. 포도. 벌이. 앵 두. 런싹. 들. 내마음근심가득하매. 가을에피는싹. 春園 … 너는靑年이다. 귀운을내어라. 平凡. 東園 … 사랑. 愛人. 가슴. 印象. 月夜. 暗夜. 惟邦 … 幻影. 죽 음의노리. 惡魔의물음. 處女의죽음. 요한 … 큰길을사모함. 나의마음고요이거 다린다. 天園역 … 타쿠르시집(2). 씨탄자리. 億生역 … 푸르게네셔 散文詩(1). (9호) 요한 … 벌미테혼자서. 쓸 어진싹줄기. 부르지짐. 모든것이다갈려. 봄달. 안서 … 落葉. 樂聲. 아츨잠. 애 낚지안은자. 봄은키쓰 싹. 바람. 극곰 … 極熊行. 岸曙역 … 알베르썬엔 … 黃昏. 萬萬生역 … 流浪美女의豫言. 岸曙 역 … 푸르게네셔산문시 … 會話. 處世法. 祈禱.

小 說

(1호) 白岳 … 神祕의幕, 長春 … 惠善의死, 東仁 … 악한者의슬픔. (2호) 長春 … 天痴?天材?. (3호) 東仁 … 마음이어튼자여, 長春 … 運命. (4호) 東園 … 夢影의悲哀. (5호) 늘봄 … 生命의봄, 새별 … 生의悲哀, 東園 … 피아노의울림. (6호) 碧波 … 눈오는밤, 白野 … 一年後. (7호) 望洋草 … 朝露의花夢. (8호) 동인 … 목숨, 빛늘봄 … 毒藥을마시는여인, 億生 … 孤獨, 새별역 … 어린것들에게, 김만덕 … 음악공부. (9호) 동인 … 배짜락이, 늘봄 … K와그어머니의죽음, 億生 … 密會.

戲 曲

(1호) 極熊 … 黃昏. (5호) 松堂生 … 살기爲하야. (7호) 흰피 … 金玉均의죽음. (8호) 흰피 … 懺悔.

紀 行

(2호) 白岳 … 故鄉의길. (3호) 흰피 … 東渡의길, 金燁 … 江戶에서 洞庭湖까지(1), (4호) 金燁 … 江戶에서 洞庭湖까지(2), (7호) 東園 … 黑煙一叢.

評 論

(2호) 極熊 … 르네상스, 秋湖 … 詩人외테. (3호) 極熊 … 불평, 露國文豪셔스토에 쉰스키氏及그이의「罪와罰」. (4호) 金煥 … 美術論, 極熊 … 文藝에대한雜感. (6호) 春城生 … 文藝에서무어슬求하는가, 시어딴 … 蠶月氏의評者의價値를論함. (8호) 별꽃 … 性格破産, 春園 … 朝鮮文士와修養, 惟邦 … 現代藝術의對岸에서, 시어딴 … 사람의사른참模樣. (9호) 惟邦 … 뜻피려할새, 시어딴 … 령혼, 批評에대하여, 惟邦 … 作品에대한評者의價値.

感 想

(4호) 별꽃 … 長江어구에서(1), (5호) 별꽃 … 長江어구에서(2), 五山人 … K先生을생각함, 琴童人 … 글동산의거둠. (7호) 東仁 … 自己의創造한世界, 별꽃 … 長江어구에서(3), 春園 … H君에게, 琴童人 … 글동산의거둠. (8호) 岸曙 … 세러니아, 새별 … C兄에게. (9호) 琴童 … 령혼, 흰피 … 나의목은日記에서, 極熊 … 七日夕陽에, 惟邦 … 懊惱의舞蹈.

6) 作家別作品

※ 요한 · 별꽃 · 주요한 · 朱耀翰

詩(37 편+ 24 편) : 불노리 새벽뭉, 하아얀날개, 선물, 해의시절, 아츨處女, 散步, 處女, 바다의눈 黃昏, 저녁밥, 歌劇, 支那少女, 공원에서, 아츨, 낮, 저녁, 밤, 외로움, 生과死, 그봄을바라, 우리집, 罌粟포도, 벌이, 앵두, 린꽃, 쫄, 내마음근심가득하매, 가을에피는꽃, 큰길을사모함, 나의마음고요이커다라다, 벌미테혼자서, 쓸어진꽃즐기, 부르지짐, 봄달, 모든것이다갈써. (번역시 24) 오키쿠, 네소매

고모로의넛城 가에서. 丞相.사쿠라소오.오사이. 어둠속에. 썸. 梘夾. 靈의해의蝕. 말업손돌. 열쇠를달라. 달과고양이. 四月.마음속. 릉금나무미테. 봄. 邪宗秘曲. 미친거리. 물을불라. 하늘에셋발간. 어릴적움. 류리베는아이. 芥子矣.

評論：性格破産

感想：長江어구에서(1) (2) (3)

※ 岸曙・億生・金億

詩：落葉.樂聲.아침잠. 애담지안은가. 붉은키스.꽃.바람. (번역시) 結婚式前. 그나마잇는가 업는가. 오늘밤도.月下의漂泊.寂寞. 술노래. 가을의노래. 푸르케네뜨산문시. 黃昏.會話.處世法.祈禱.

小說：孤獨.密會(번역)

感想：세리니아

※ 東園・南星・李一

詩：東京아잘잇거라. 新生日. 사랑.愛人. 가슴. 印像.月夜. 暗夜

小說：夢影의悲哀. 피아노의울림

紀行：黑煙一叢

※ 秋湖・長春・늘봄・맛늘봄・田榮澤

(번역시) 가타리나. 他國에서. 어대 너인. 슬기로운밤. 밤의뜻. 이른봄.

小說：惠善의死. 天痴? 天才?. 運命 生命의봄. 毒藥을마시는여인. K와그어머니의죽음.

評論：詩人

※ 春園・외배・李光洙

詩：밋봄. 江南의봄 너는青年이다. 귀운을내어라. 平凡

評論：朝鮮文士와修養

感想：K先生을생각함

※ 天園 吳天錫

詩：뫼길. 故鄉으로 써남 (번역시) 타쿠르시집 키탄자리

※ 抱歌 金惟邦

詩：幻影 죽음의노래. 惡魔의물음. 處女의죽음

評論：現代藝術의對岸에서. 뜻피러할예. 作品에 대한 評者의價值

感想：懊惱의舞蹈

※ 極熊·극곰·崔承萬

詩: 極熊行. (번역시) 배

戲曲: 黃昏

評論: 르네 상스 불평. 露國文豪 스토에프스키氏及그이의 「罪와罰」. 文藝에 대한雜感

感想: 七日夕陽에

※ 素月 金廷植

詩: 浪人の봄. 夜의雨滴. 午過의泣. 그리워. 春岡

※ 象牙塔 黃錫禹

詩: 눈으로愛人아오너라. 小曲

※ 琴童·시어담·金東仁

小說: 약한자들의 슬픔. 마음이여튼자여. 목숨. 배짜락이

評論: 霧月氏의 評者의 價値를 論함. 사람의 사른참 模樣. 批評에 對하여. 령혼

感想: 글동산의 거듬. 自己의 創造한 世界

※ 새별 朴錫胤

小說: 生의悲哀. 어린 것들에게 (번역)

感想: C兄에게

※ 白岳·흰희·金煥

小說: 神秘의幕

戲曲: 金玉均의죽음 懺悔

紀行: 故鄉의길 東渡의길

評論: 美術論(1) (2)

感想: 나의목은日記에서

※ 望洋草 金明淳

小說: 朝露의花夢

※ 碧波 方仁根

小說: 눈오는밤

※ 白野 朴英燮

小說: 一年後

※ 金輝

紀行：江戸에서洞庭湖까지(1) (2)

※ 春城 蘆子泳

評論：文藝에서 무어슬求하는가

2. 폐 허 (廢墟)

1) 동인 (同人)

金億·金永煥·金瓚永·金元周(一葉)·南宮壁(草夢)·羅惠錫(晶月)·廉尙燮(橫步·想涉)
·李丙燾(斗溪·白水)·李赫魯·閔泰瓊(牛步)·吳相淳(空超)·黃錫禹(象牙塔)

2) 발행일 및 편집인

號數	發行日	編輯兼發行者	印刷人	發行所
1 호	1920. 7.25.	高 敬 相	朴仁煥	廢墟社
2 호	1921. 1.20.	南 宮 壁 李 秉 祚	〃	新半島社

3) 想 餘

(1호에서) 우리의 同人의 이름은 이러하다. (가나다차례) 金億·金永煥·金瓚永·金元周·南宮壁·羅景錫·廉尙燮·李丙燾·李赫魯·閔泰瓊·吳相淳·黃錫禹

우리의 것들은 「廢墟」에 새색을 심어 써 새색을 피우게 하고 한길갓치 芳香을 맘껏 마타보자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決斷코 黃昏하늘아래의 넘어가라는 벗만을 바라보며 가이업는 追憶의 心情을 가지고 무덤의 우에 서서 돌아오지 못할 벗날을 보라고 하야 애답아 할 것이 아니고, 먼地 平우에 보이는 새 記錄을 지을 印을 생각하여야 한다. 날근부대에 새색을 잊지너 흠미옥이 있으며, 새부대에 날근술을 너흠잘못이 잊지 잊서서야 될수잇스랴.

흠이여기름저라,
풀이여씩나거라,
廢墟의.

꽃치여피거라,
열매여맺거라,
廢墟의.

나뉘여춤추거라,
새여우슴웃거라,
廢墟에와서.

시내여숫거라,
고기여뛰늘거라,
廢墟의.

黑雲아훑터저라,
春風아불날너라,
그리하여,
모든것이太陽밧헤成長하여라.
그리하여,
廢墟가變하여花園이되여라.
그리하여,
우리도世界藝苑을構成하는一部分이되여라.

「廢墟」는 同人組織의 雜誌다. 同人十數三人이 經營하여가는 雜誌다. 故므로, 「廢墟」가 우리 同人들의 雜誌인 것은 分明한 事實이다. 그러나, 우리 同人들만의 雜誌는 아니다. 同人들의 雜誌되는 同時에 우리 朝鮮人의 雜誌다. 우리 朝鮮人의 雜誌되는 同時에, 全人類의 雜誌다.

「廢墟」라는 題目은, 獨逸詩人 실레르의,

넛것은滅하고, 時代는變하였다.

내生命은廢墟로부터 온다.

는 詩句에서 取한 것이다.

「廢墟」發行에 關한 모든 費用은, 廣益書館主人 高敬相君이 全部 出金하기로 하였다. 「廢墟」가 比較的 安産된 것은, 全히 高君의 好意를 까닭이다.(생략) 요컨대 君의 身上과 事業에 幸福과 光明이 날로 더할지이다.

廢墟二號 廢墟雜記에서

廢墟에 선 우리 몸은 썰린다. 過去人類의 先驅, 우리 祖上의 偉大한 努力, 文化, 繁榮을 思하여 斷腸의 念을 못 견뎌내고, 現在 우리의 墮落, 衰殘, 無能, 無學에 마음이 압하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빈터 — 우리의 집, 우리의 나라, 우리의 땅을 그대로, 이대로 바려두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復活의 曙光을 보고자한다. 偉大한 未來를 創造코자한다. 우리는 이 말할 수 업는 絶對生命의 欲求와 타오르는 熱情과 衝動에 의여 廢墟우에 섰다. 廢墟우에서 고보니, 過去는 杳然하여 우리의 가슴은 漠漠하고, 現代는 荒涼하여 우리의 눈물을 자울 널뿐이다. 우리는 이 말할 수 업는 心的 懊惱와 苦痛을 우리가 가슴에 무겁게 품고 눈물가지고 廢墟에 섰다. 날은 점을고, 갈길머 — 나그네의 心懷를 禁할 수 업다. 그러나 因循姑息은 우리의 미워하는 바요, 彷徨躊躇는 우리의 禁物이다. 우리의 生命은 未來에 있다. 未來의 生命이 過去와 現在의 延長 持續임은 勿論이겠다. 그러나, 우리의 要求하는 새로운 生命은 오직 未來에 있다. 過去와 現在는 有限하다.

4) 작 품

詩

(1 호) 象牙塔 …… 夕陽은 썬진다. 外短曲十篇. 霽月 …… 法衣. 步星 …… 네 발자국소리. 岸曙역 …… 예르렌 詩抄 …… 가을의 노래. 나무그림자. 흰달. 피아노. 이엣츠의 詩(낙엽).

(2 호) 羅晶月 …… 내물. 砂. 南宮草夢 …… 풀. 大地와 生命. 大地의 讚. 吳相淳 …… 힘의 승배. 실레르 …… 폐허. 岸曙역 …… 예르렌 詩抄. 이병도역 …… VanDyke 의 日本風景 詩(日光의 赤橋. 燈明台. 奈良의 休息).

小 說

(1 호) 閔泰瑗 …… 어느少女 (2 호) 閔泰瑗 …… 音樂會

評 論

(1 호) 廉尙燮 … 廢墟에서. 李丙燾 …… 朝鮮의 古代藝術과 吾人의 文化的 使命. 羅景錫 …… 洋鞋와 詩歌. 黃錫禹 …… 日本詩壇의 二大傾向. 億生 …… 스펅쓰의 苦惱. (2 호) 吳相淳 …… 宗教와 藝術. 卞榮魯 …… 메터 링크와 에잇츠의 神秘思想. 金元周 …… 먼 저現狀을 打破하라. 金億 …… 프로베르論. 廉尙燮 …… 月評.

散文·隨想·其他

(1 호) 金瓚永 …… K兄에게. 吳相淳 …… 時代苦와 그犧牲. 李赫魯 …… 黃薔薇花. 南宮壁 …… 自然. 想涉 …… 樽樹下에서. 同人印象記 …… 廉尙燮 …… 情의 吳君. 변영로 …… 내가 본 吳君. 남궁벽 …… 내 의양면성의 인사. 同人 …… 想餘. (2 호) 同人 …… 廢墟雜記. 南宮 …… 編輯餘錄.

5) 作家別作品

※ 象牙塔 黃錫禹

詩 : 夕陽은 썬진다 外短曲十篇

評論 : 日本詩壇의 二大傾向

※ 岸曙 金億

詩 : 예르렌 詩抄(번역). 이엣츠의 詩(번역)

評論 : 스펅쓰의 苦惱·프로베르論

※ 霽月

詩 : 法衣

※ 步星

詩 : 네 발자국소리

※ 羅晶月·羅景錫·羅惠錫

詩: 내물·砂

評論: 洋鞋와 詩歌

※ 斗溪·白水·李丙熾

역시: VanDyke 의 日本風景詩(日光의 赤稿, 燈明台, 奈良의 休息)

평론: 朝鮮의 古代藝術과 吾人의 文化的 使命

※ 草夢·南宮璧

詩: 풀 (生命의 秘義, 大地와 生命, 大地의 讚)

산문: 自然, 내의 양면성의 인사(吳君)

※ 空超 吳相淳

詩: 힘의 숭배

評論: 宗教와 藝術

산문: 時代苦와 그 懺生

※ 牛步 閔泰瓊

小說: 어느 少女 音樂會

※ 橫步 想涉 廉尙燮

評論: 廢墟에서 月評

隨想·散文: 樽樹下에서 情의 吳君

※ 樹洲 卞榮魯

평론: 메터-링크와 에이트츠의 神秘思想

산문: 내가 본 吳君

※ 一葉 金元周

평론: 먼저 現狀을 打破하라

※ 李赫魯

산문: 黃薔薇花

※ 金瓚永

산문: K 兄에게

3. 백 조(白潮)

1) 동 인(同人)¹¹⁾

洪思容(露雀)·蘆子泳(春城)·朴鍾和(月灘)·羅彬(稻香)·朴英熙(懷月)·李光珠(春園)
·李相和(尙火)·吳天錫(天園)·玄鎮健(憑虛)·安碩柱(夕影)·元雨田(以上은 創刊號부터)
·金基鎮(八峰)·方定煥(小波) (以上은三號부터)

2) 발행일 및 편집인

號數	발행일	편집겸발행인	인쇄인	발행소
1호	1922. 2. 1.	洪思容亞扁薛羅	金重煥	文化社
2호	1922. 5. 25.	“ 卍이시夫人	“	“
3호	1923. 9. 6.	“ “	“	“

2) 雜記

(1號에서) 남에게 빛이잇스나 우리에는 아무러한 빛이업스며, 남에게 자랑이잇스나 우리에게 아무러한 자랑이업도다. 임의가졌든 빛은낱어 褪色된 지오래였고 새로운이에 부르지짐은 아직도 쓰거움지못하야 옛날의번적어러든 榮華의꿈이악이만 朦朧히 灰色하늘에 스러져가는별 빛갓흔데 애닦은 追憶의 동네에해매이는 젊은사람의마음은 그얼마나 서슬한가슴미여지는 哀愁에 적시웠스랴. 밤마다밤마다 고요한밤마다 어지러운풀동산위에안져 하음업시 이슬에저져서는풀을 낙구며 가만가만이 노래부르고 도라가는 北斗七星을안어 눈물석긴 압흐고슬흔 기인 追憶의냄새에 맥맥한가슴만취어쓰들뿐이었다.

이에그第一步로 白潮가 出現케되니 創始의一號라. 勿論極善美를 다한 完全의것이라 자랑할수는업는것이니, 다만우리의모든글동모의 거짓업는 참과경성에서 소슨 『참』의 結晶일뿐이다.

表紙는 젊은畫家로 造詣가깊 혼 安碩柱君의 그림이다. 그感興깊 혼 藝術美에 두터운 安君의筆致는 한번 鑑賞할價値가 잇슬줄안다.

(2호에서) 朝鮮사람이면은 누구나 다 말하는바이지만 우리는 自由가업습니다. 더구나出版에 自由가업서요, 그런데에다 三月號를 出刊하랴든 一週日前에 亞扁薛羅氏가發行人을 謝退하엿습니다.그래 氏에게 陳情으로 懇請하기에 몇칠 다른곳에 紹介狀가지고 다니기에 몇칠하다가 結局은 失望하여 몇칠 또 出版制度를고치자고몇칠 그리고보니 時節은 발서 느졌더이다. 그리다 千萬多幸으로 卍이쓰夫人이 承諾을 하섯습니다. 中間에서 애써주신여러분도 勿論 고마우시지만은 特히夫人께 만흔感謝를 드립니다. 느껴진理由는 이것뿐이올시다. 무슨同情을 줍소사하는것 이안이라 이러한事情이나 짐작해주소서함입니다.

¹¹⁾ 조연현, 상계서 p.115에는 李光珠·安碩柱·元雨田·金基鎮·方定煥 등이 없음.

表紙裝畫는 元雨田氏 裏面裝畫는 安夕影氏의 붓이올시다. 거기에 숨긴 뜻을 說明은 붓칠수업스나 그대로 아무쪼록 만흔 鑑賞을 주소서.

京鄕各地에서 寄稿하신분이 만흐셨는데 사랑으로 보내신 뜻은 感謝함이다. 그러나 本誌는 同人制임으로 未安하오나 同人으로 推薦되기前에는 紙上에 올릴수는업습니다.

(3호에서) 『白潮』는 탄생되었다. 오랫동안 말할수업는 困苦와 迫害에 업들어잇든 白潮를 다시세상으로 내보내게 되었다. 우리는한업시깃 벗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런 자랑할만한것이업다. 다만 純眞·敬虔 이것으로向하야 나아갈뿐이다.

이번 『白潮』가 다시 復活된 功은 쏘혀 露雀君에게로 돌려보내지안홀수업다……

金基鎮 方定煥 두분님께서 새로이 白潮同人이되어주셨다.…….

4) 작 품

詩

(1호) 洪思容…… 白潮는 흐르는데 별 하나하나하나. 통발, 꿈이면은, 漁父의 跡. 둘은江물에 물노리치는것은. 朴鍾和…… 密室로도라가다. 挽歌. 朴英熙…… 微笑의 虛華市. 幻影의 黃金塔. 어린이의 航路. 산문시 (하날의 향연, 이별한후에). 李相和…… 末世의 歎嘆. 單調. 蘆子泳…… 꽃 피려는 處女. 李光洙…… 樂府. 羅彬역 … 투게네프산문시. (2호) 懷月…… 꿈의 나라로 그림자를나는쪼치다. 어둠넘어라. 幽靈의 나라. 李相和…… 가을의 風景. TO. 露雀…… 봄은 가더이다. 民謠·月灘…… 黑房秘曲. 春園…… 樂府. 羅彬역 … 투게네프산문시. (3호) 李相和…… 나의 寢室로. 露雀…… 墓場. 흐르는물을붓들고. 그것은모다꿈이 엇지마는. 懷月…… 月光으로 寢室. 基鎮…… 한갈래의길. 月灘…… 死의 禮讚. 극시죽음보다압흐다. 春城…… 외로운밤.

小 說

(1호) 蘆子泳…… 漂泊. 稻香…… 젊는이의시절. 憑虛…… 迎春柳. (2호) 稻香…… 별을안거든우지나말길. 玄鎮健…… 蹂躪. 蘆子泳…… 漂泊. (3호) 憑虛…… 한머니의죽음. 月灘…… 목매이는女子. 稻香…… 女理髮師. 露雀…… 저승길. 懷月…… 生.

희 곡

(1, 2호) 朴英熙역…… 사로메

感想·想華

(1호) 朴鍾和…… 永遠의 僧房夢. (2호) 春城…… 牛誕愛兒에게. 春園…… 감사와사죄. 懷月…… 感想의 廢墟. (3호) 基鎮…… 썰어지는조각조각. 露雀…… 그리움의한목금

評 論

(1 호) 月灘 …… 러시아의 민謡紹介. (2 호) 朴鍾和 …… 嗚呼我文壇. (3 호) 懷月 …… 生の悲哀

紀 行

(1 호) 甬 길 …… 鐵瓮城에서. (2 호) 感 虛 …… 廢墟한記憶

5) 作家別作品

※ 露雀 洪思容

詩 : 白潮는 흐르는데 별 하나 하나하나. 꿈이 먼은?. 통발, 漁父의跡. 돌은江물에 물노리치는것은. 봄은 가더이다. 민謡, 墓場. 그것은모다꿈이엇지 마는. 흐르는물을붓들고

小說 : 저승길

想華 : 그리움의 한목금

※ 尙火 李相和

詩 : 末世의 歎嘆. 單調. 가을의 風景. TO. 나의寢室로

※ 懷月 朴英熙

詩 : 微笑의 虛榮市. 幻影의 黃金塔. 어린 이의 航路. 客. 하늘의 향연. 이별한후에. 꿈의나라로. 그림자 를나는초치다. 幽靈의나라. 月光으로싼病室

小說 : 生

희곡 : 사로메

평론 : 生の悲哀

想華 : 感想의廢墟

※ 月灘 朴鍾和

詩 : 密室로도라가다. 挽歌. 黑房秘曲. 春의小曲. 死의禮讚. 죽음보다압하다.

小說 : 목매이는女子

평론 : 러시아의민요소개. 嗚呼我文壇

감상 : 永遠의僧房夢

※ 稻香 羅彬

시 : 투게네프산문시 (번역)

소설 : 젊은시절. 별을안거든우지나말길. 女理髮師

※ 憑虛 玄鎮健

소설 : 迎春柳, 蹊綱, 한머니의 죽음

기행 : 朦朧한記憶

※ 春城 蘆子泳

시 : 꽃피려는處女 외로운밤

소설 : 漂泊 (1) (2)

想華 : 牛誕愛兄에게

※ 金基鎮

시 : 한갈래의길

想華 : 썰어지는조각조각

※ 春園 李光洙

시 : 樂府 (1) (2)

想華 : 감사와사죄

※ 天園 吳天錫

동화 : 무지개나라로 (번역)

※ 夕影 安碩柱

畫 : 醉

III. 결 론

지금까지 동인지 「창조」와 「폐허」와 「백조」 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것들은 1920년대 초엽의 한국현대문학을 출발시키는데 공이 많았다. 그 동안에 한국문학사에서는 다만 업적이 컸다는 몇 마디 서술로 그친 감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현대문학이 1세기를 다해 가는 마당에 그들의 율은 크게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창조」와 「폐허」와 「백조」 들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보다 폭넓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문학사정리에 도움을 주고 싶었다.

그들은 각각 12인 또는 13인의 동인들이었으며 연인원은 35인쯤이었는데, 이름이 있거나 없거나 그들의 활동으로부터 한국현대문학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활동기간은 1919년 2월에서 1923년 9월에까지 5여년이었고, 시 1백 70여편, 소설 35여편, 희곡 5편, 평론 30여편과 수필 40여편이었다. 그들 동인과 동인지들은 지난 10여년 전에 있었던 개화기 문학보

다는 훨씬 문학다운 문학세계를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서구문학처럼은 문예사조나 작품은 없었지만, 한국문학에 사실주의와 자연주의와 낭만주의문학을 소개하고 그러한 작품을 몇몇을 남기기도 하였으니 말이다. 때문에 언젠가는 그들을 위한 작가론이나 작품론도 나올 만하겠으니 이는 한국문학의 과제이다.

황무지와 같던 한국문학세계에 남겨 놓은 그들의 업적은 그들의 연령층으로 보아 대단히 훌륭하고 대담하였다. 우리는 그들의 정신과 노력과 작품을 재평가하여 합당한 위치에 놓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조병화·서동철, 한국현대문학사, 서울:유림사(1981).
2.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개관, 서울:정음사(1984).
3. 백조, 서울:문화사(1922). 서울:태학사(1982).
4. 창조, 동경:창조사(1919). 서울:태학사(1982).
5. 폐허, 서울:폐허사(1920). 서울:태학사(1982).

**A Study on literary coterie magazines, TSANG-ZO,
PYEHUH and PAIK-ZO**

Lee, Byoung-moon

Dept. of Liberal Arts

Kwangju Health Junior College

> *Abstract* <

Being stated above, we contemplated literary coterie magazines, CHANGZO (THE CREATION), PYEHUH (THE RUINS) and PAIKZO (THE WHITE TIDE). They played a great role of initiating Korean modern literature of 1920's, but, so far, they estimated only as several words that they made a great deal of achievement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But, at the moment of closing one century of Korean modern literature, we must review their roles and achievements. In this statement, I intended to help many people understand them and arrange the history of literature, through concrete study of those magazines.

The staff of each magazine was consisted of 12 or 13 members, and total number of members reached into about 35. The staff of magazines, whether famous or not, founded and published them from February 1919 to September 1923. They issued about 170 poems, 35 novels, 5 dramas, 30 critiques and 40 essays.

The literary level of those literary coterie magazines were even more orthodoxical than that of enlightening literature era which was 10 years prior to them. So to say, even though, unlike western literature, they didn't have systematic trend or works of literature, they introduced realism, naturalism and romanticism to Korean literature. So, it is natural that some time themes on writers and works of that times would be made. That is task for us Korean literary groups.

Considering their ages and environments, we could say that their achievements in Korean literature which was almost waste land are very great

and bold things. We must reevaluate to study their spirits and endeavors and works concretely.